

## “이념 넘어 실용... 선진화 원년”

### 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 ‘섬기는 정부’ 등 5大 국정방향 제시

#### “북핵 포기땀 남북 협력 새 지평”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 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들과 국민 등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실용주의를 모토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건국 이후 6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선진화를 위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군 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법적 권한을 인수받은 뒤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남극 세종기지 근무자를 격려하는 것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가자’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5대 국정 방향으로 ▲섬기는 정부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 ▲문화창달과 과학발전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공영 이바지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

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0년, 더러는 멍청거리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제 성취의 기쁨은 물론 실패의 아픔까지 자산으로 삼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 이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더 활기차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경쟁 도입,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 외교 지표로 ‘글로벌 외교’를 내세운 이 대통령은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교류할 것”이라고 설명한 뒤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도 협력관계를 강화해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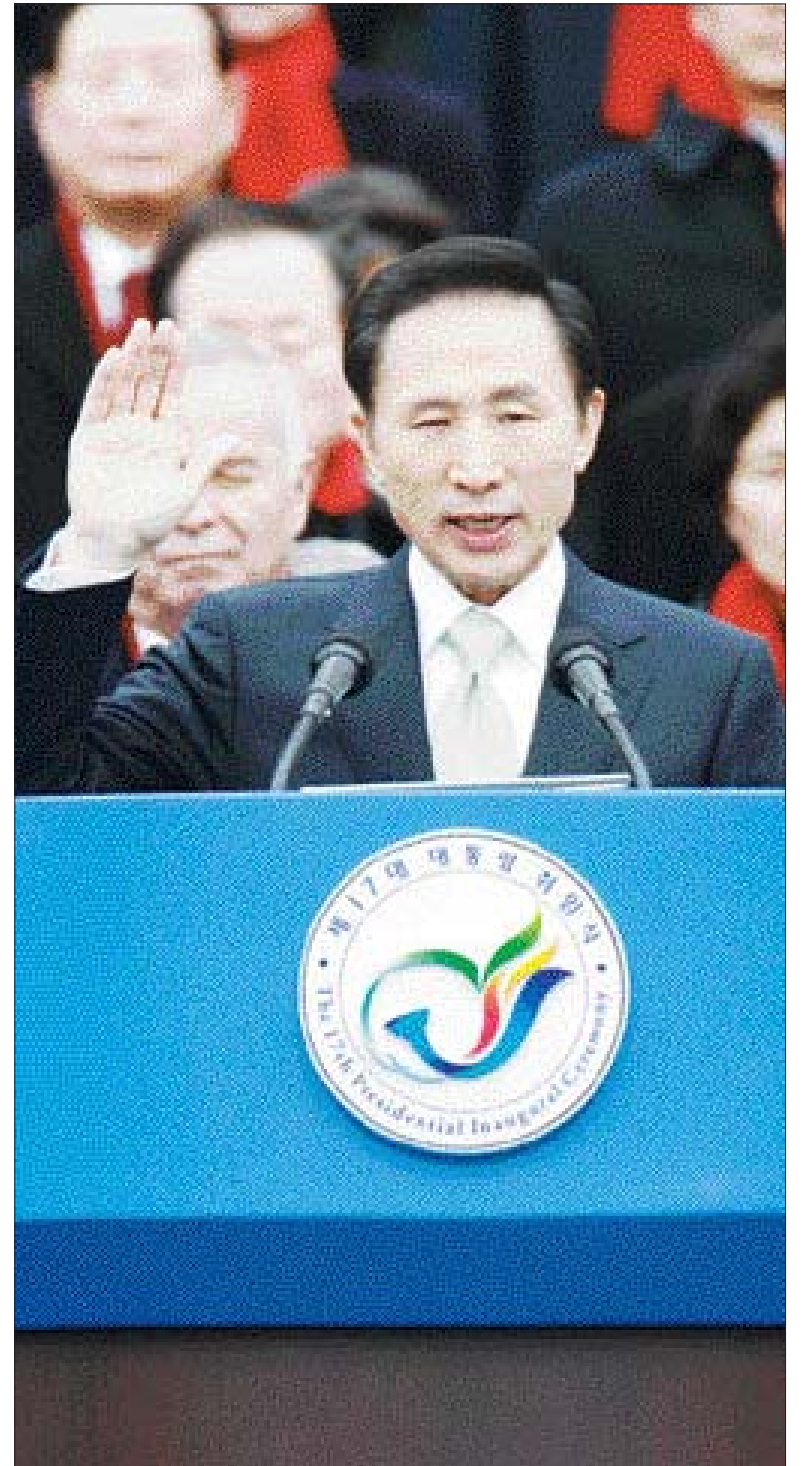
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선(先) 북핵 폐기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한 대전진이 시작됐다”면서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가자. 저, 이명박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오전 가회동 자택을 떠나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장인 국회 의사당에 도착, 새로운 5년을 알리는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관련기사 3·4·5·11면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제 각료·수석 재검증

청와대, 남주홍·박은경·박미석 ... 추가 낙마 주목

### 대통령실장·靑 수석들 공식 임명

청와대가 부동산투기 의혹과 자녀 이종국적 논란, 제자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인 일부 각료 내정자와 청와대 수석 내정자들에 대한 재검증을 본격 진행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나경원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일부 문제된 인사들에 대해 재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들여다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재검증 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현재 통합민주당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인사는 남주홍 통일장관, 박은경 환경장관, 박미석 청

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등 3명으로, 재검증 결과에 따라 이준호 전 여성장관 내정자에 이어 추가 낙마하는 각료 또는 수석 내정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주홍 내정자는 강경보수 성향의 대북관과 함께 자녀의 이종국적 논란, 부인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고, 박은경 내정자는 절대농지 불법취득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미석 수석 내정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여 민주당 등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박 내정자의 경우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

수한 상태로, 그 조사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류유외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을 공식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 공표안이 아직 발효되지 않음에 따라 류 대통령실장과 김인중 경호처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라는 기존 정부조직법상의 직제를 적용했다. 또 외교안보 김병국, 경제 김중수, 사회정책 박미석, 민정 이종찬, 국정기획 과속준수석도 이날 새로 임명했으나 현역 의원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수석 내정자와 박재만 정부수석 내정자에 대해선 의원 경직 불가 규정에 따라 의원 사퇴 이후 임명기로 했다. /연합뉴스

## 韓·日 서틀외교 복원 합의

이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4강 외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5일부터 4강 외교 행보를 전개했다.

취임식 축하사절단으로 방한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시급한 현안인 북핵 문제를 비롯,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이 끝난 뒤 자리를 옮겨 오후 1시 50분 청와대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간 투자 활성화와 경제계의 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과 양국 경제각료 회의의 복원에 합의하는 한편, 4월 중 이 대통령의 방일과 올 하반기 후쿠다 총리의 답방 계획을 추진기로 하는 등 서틀외교 복원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정

상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을 통해 양국은 서틀 정상 외교 복원의 구체적 실현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오는 7월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8개국) 정상회의와 이 대통령 참가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을 접견했다. 탕 국무위원과의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해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이 주 의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이 6자회담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중국정부가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후 주석은 탕 위원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전한 친서에서 “오늘 한국과 중국은 양국관계의 새 출발점에 서 있다. 오늘을 계기로 과거를 개선하

### 취임 선서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미래를 개척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후 5시에는 빅토르 주코프프 러시아 총리와도 만나 자위 외교를 포함한 양국 우호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임기(5월) 안에 이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문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곧바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을 면담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이 대통령은 라이스 장관과 회담을 통해 4월 중순 미국 방문과 함께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장기 교착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유망학원·강원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한승수 총리 임명동의안

### 오늘 표결 ... 정치권 긴장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26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무난하게 인준안을 통과시켜 줄 것 같았던 통합민주당은 인사 청문회를 거치면서 재산신고 누락 등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퍼면서 ‘권고적 반대 당론’을 채택하는 쪽으로 흐름을 잡아 가고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2002년 재산변동 신고 때 2001년에 구입한 현대슈퍼빌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고 이후 2004년 5월까지 세 차례나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해 명백하게 헌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41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9석의 민주노동당이 힘을 합칠 경우 과반의석이 되기 때문에 총리 인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까지 부결된다면 정국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맞물려 더욱 격렬한 대치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야권의 강경기류가 감지되자 한나라당은 새 정부 초대 총리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과 파행이 초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당 소속 의원들의 26일 본회의 출석을 독려하는 등 표 단속에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광고

광주광역시 북구(을) 임내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광주경제발전 든든한 중앙인맥을 가진 임내현이 이루겠습니다!

따뜻한 정치후원금은 선진정치의 동력

- 광주 중앙초, 광주서중, 경기도, 서울법대 졸업
- 법무연수원장
- 광주 고등검찰청 검사장
-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
- 전주 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공판송부 부장
- 서울 지방검찰청 형사 2,4,5부장
- 국제 검시협회 상임위원
- 대통령민주신당 중앙당 법률구조위원장

통합민주당 광주시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내 천 후원회, 광주광역시 북구 광동동 1369-4번지 2층 전화 062)629-0391 팩스 529-0591 홈페이지 www.imnaehyun.com 싸이월드 미니홈피 www.imnaehyun.com

아름다운 정치를 위하여 임내현을 후원해 주십시오!

정책후원: 국민의 생각이 가장 빠른 정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후원해 주십시오. 정책제안, 입법,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 등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약화해, 피말나무로 키우겠습니다.

재정후원: 10만원을 후원하시면 10만원을 연방정상으로 돌려드립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00만원까지는 희망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 후원하는 경우에는 김해카드, 제치카드, 신용카드, 수표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후원만 가능합니다. 법인, 단체에 정회하는 후원 중 있으며, 개인명의로 후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후원만 가능합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후원금 조달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모금만 가능하며, 영외의 후원회 명하는 일하지 않습니다.

농협 1164-01-065088 (예금주:광성빌) 광주은행 075-121-948027 (예금주:광성빌)

## 제23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9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주성필 교수 ‘출혈성 뇌혈관 질환의 치료’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9일(금) ‘제23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출혈성 뇌혈관 질환의 치료’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주성필 신경외과 교수로 심혈관 질환, 종양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의 하나인 뇌혈관 질환 중 출혈성 뇌혈관 질환의 원인·증상·종류 등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강좌 내용은 오는 3월 4일(화)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주 제: 출혈성 뇌혈관 질환의 치료
- 강 사: 주성필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
-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뇌혈관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2007년 뇌혈관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 전남대학교병원 임상전임강사

- 일 시: 2월 29일(금) 오후 2시
- 장 소: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